

네트워크장비

암흑기 통과 중, 6월 이후를 대비한 비중확대 전략 펼칠 시점

대다수 국내 5G 장비 업체 1Q 바닥, 이후 점진적 회복 전망

1분기 국내 5G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부진하였다. 수출 지연에 국내 통신 3사 5G 투가 급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2분기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곤 대다수 업체가 1분기보다 다소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통신 3사 CAPEX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미하지만 대다수 장비 업체들이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수출 물량 동시 증가, 하반기 실적 호전 본격화될 듯

하반기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6월부터 국내/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감안할 때 3분기부터는 2분기 대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4분기엔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함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투자 지연 수요까지 겹치면서 괄목할만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국내/미국/일본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인도 및 유럽 수출이 가세하면서 실적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통신 3사 매출이 6월 이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사 가이던스와 정부 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CAPEX가 7조원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인데 CAPEX 규모가 1분기 8천억원, 올해 상반기 합계가 2조원 수준에 불과할 것을 추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하반기엔 5조원 수준의 CAPEX 집행이 예상되어 작년 하반기 대비 CAPEX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28GHz 시대 개막, 위성은 위협 요인 될 수 없어

올해 하반기 인빌딩 위주로 국내/미국을 시작으로 28GHz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 점도 네트워크장비 업체 주가 상승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IoT/메타버스로의 5G 진화와 더불어 장비 투자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5G를 위성과 비교하는데 위성통신은 절대 5G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속도, 네트워크 안정성, 커버리지, 트래픽 처리 용량, 단말기 지원 측면에서 모두 그렇다. 제도적으로도 위성통신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 주파수 사용 대가 문제, 인접 국가간 혼선 문제, 보안 문제, 위성간 충돌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월이 지나도 위성 통신은 니치 마켓을 형성하는 데 그칠 것이 유력하다.

상대 투자매력도 RFHIC/다산네트웍스/이노와이어 높아

실적 회복 속도/수주 전망/이벤트를 기반으로 당사 커버리지 내 종목별 투자매력도는 이노와이어=다산네트웍스=RFHIC > KMW=솔리드로 평가한다. 이노와이어/다산네트웍스/RFHIC를 Top Picks로 제시하는데 스몰셀 매출, 미국 수출 호조, Gan TR 매출 호조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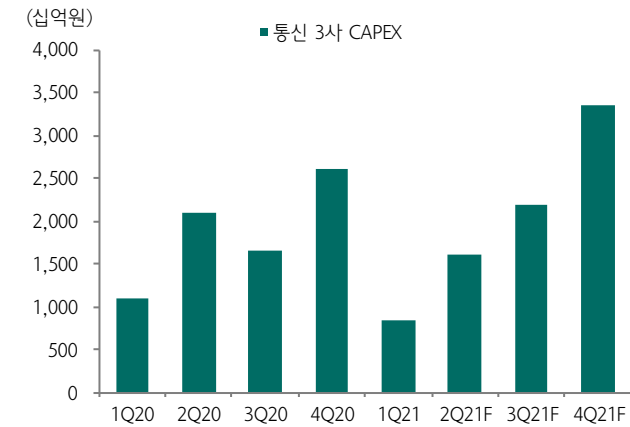
종목명	투자 의견	TP(12M)	CP(6월 3일)
KMW(032500)	BUY	120,000원	55,700원
RFHIC(218410)	BUY	60,000원	38,100원
다산네트웍스(039560)	BUY	18,000원	10,200원
이노와이어리스(073490)	BUY	90,000원	45,550원
솔리드(050890)	BUY	15,000원	7,340원



Analyst 김홍식
02-3771-7505
pro11@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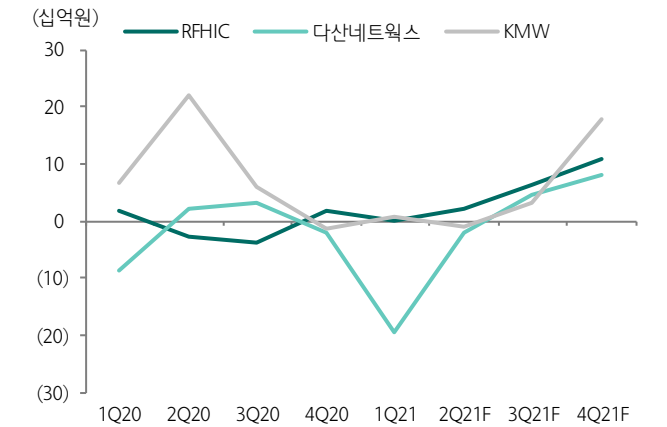
RA 최수지
02-3771-3124
suuji@hanafn.com

그림 1. 국내 통신 3사 분기별 CAPEX 전망



자료: 각사, 하나금융투자

그림 2. RFHIC/다산네트웍스/KMW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



자료: 각사,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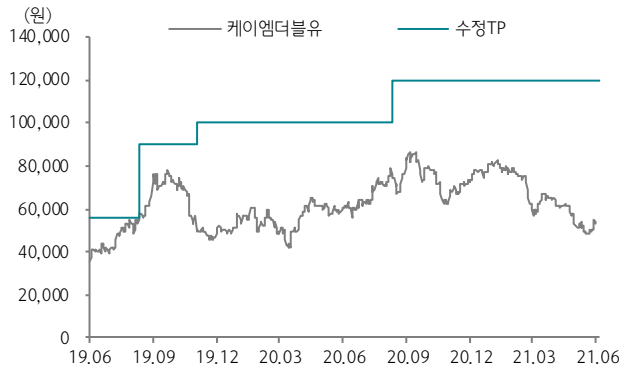
그림 3.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5G 이동통신서비스 대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유

- 1 속도, 네트워크 안정성, 커버리지, 트래픽 처리 용량, 단말기 지원 측면에서 5G가 위성통신보다 월등
- 2 위성통신의 경우 주파수 사용 대가/인접 국가간 혼선/보안/위성 간 충돌 등 해결 난제 산적
- 3 ARPU/CAPEX/관리비용 감안 시 5G가 위성보다 사업 성공 가능성 높음

자료: 하나금융투자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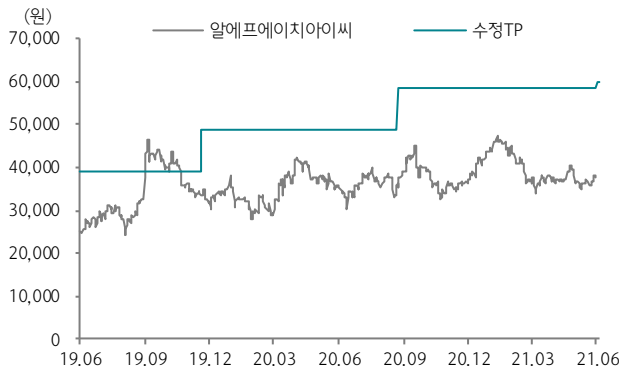
케이엠더블유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8.14	BUY	120,000		
19.11.5	BUY	100,000	-42.74%	-20.70%
19.8.14	BUY	90,000	-25.31%	-13.67%
19.5.28	BUY	56,000	-19.44%	-1.07%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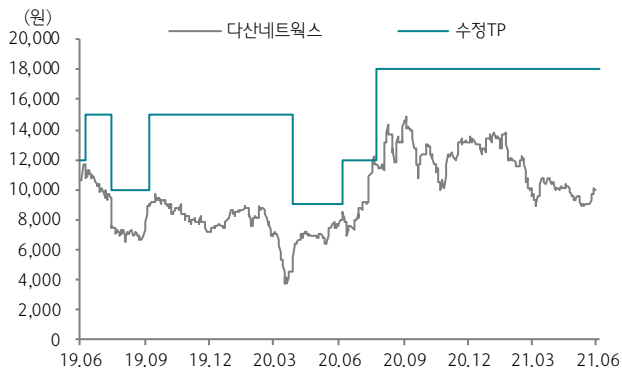
알에프에이치아이씨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1.6.4	BUY	60,000		
20.8.26	BUY	58,540	-33.67%	-18.92%
19.11.21	BUY	48,784	-27.93%	-13.20%
19.10.18	1년 경과		-	-
18.10.18	BUY	39,027	-25.69%	18.5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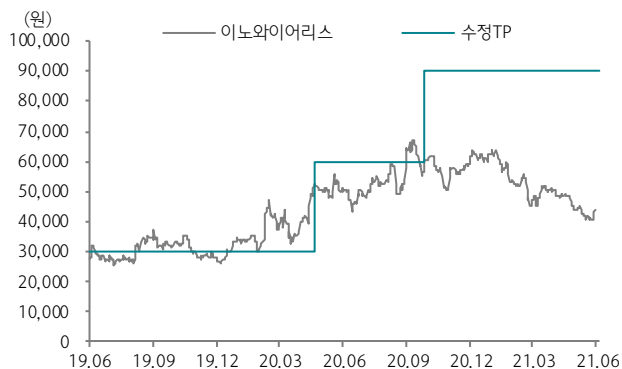
다산네트웍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7.27	BUY	18,000		
20.6.9	BUY	12,000	-25.47%	2.08%
20.3.30	BUY	9,000	-21.93%	-10.67%
19.9.10	BUY	15,000	-47.57%	-35.33%
19.7.17	Neutral	10,000	-27.58%	-10.00%
19.6.11	BUY	15,000	-31.63%	-24.67%
19.5.21	BUY	12,000	-14.17%	-2.92%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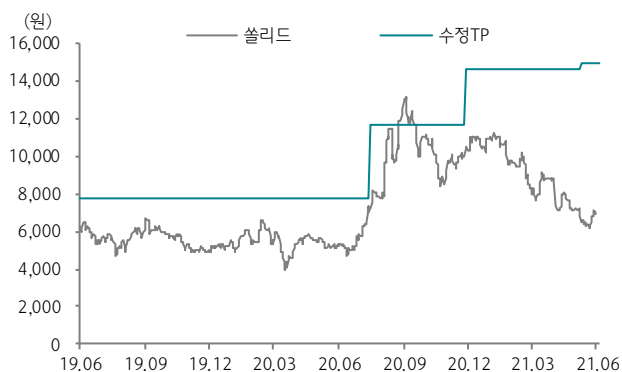
이노와이어리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9.28	BUY	90,000		
20.4.23	BUY	60,000	-11.44%	11.50%
19.5.15	BUY	30,000	8.68%	72.67%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솔리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1.5.13	BUY	15,000		
20.11.30	BUY	14,593	-36.67%	-22.66%
20.7.17	BUY	11,675	-13.82%	12.50%
20.5.22	1년 경과		-	-
19.5.22	BUY	7,783	-28.77%	-13.75%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3.33%	6.67%	0.00%	100%

* 기준일: 2021년 06월 03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6월 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1년 6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